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날인 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실내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딴 이승훈(왼쪽부터), 이규혁, 모태범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종합 3위 한국선수단 해단식

오늘 오전 인천공항 도착  
2017년대회 日 샛פור서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종합 3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이 6일(이하 한국시간) 알마티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김중욱 선수단장 등 임원과 선수단 19명은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알마티호텔에서 해단식을 열고 대회 성과를 자축했다.

해단식에는 알마티에서 경기를 치른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오리엔테어링 종목 선수들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우리 선수단은 동계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따는 등 목표했던 종합 3위의 성적을 달성했다"라며 "선수들은 전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 스포츠의 위상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격려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비롯해 은메달 12개와 동메달 13개를 따며 애초 목표인 금메달 11개를 초과 달성했다.

선수단은 이날 밤 아스타나에서 알마티로 넘어오는 빙상 선수단과 합류해 한국으로 떠난다. 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선수단은 별다른 공식 행사 없이 해산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대회인 제8회 동계아시안게임은 6년 후인 2017년에 일본 삿포로와 오비히로에서 열린다.

이는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픽업위원회(OCA)가 동계올림픽과의 일정 조정을 위해 차기 대회를 4년 후인 2015년이 아닌 2017년에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OCA는 1999년 제4회 강원 대회부터 동계 올림픽 1년 뒤에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해 왔지만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동·하계 아시안게임을 모두 올림픽 1년 전에 열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4관왕 놓쳤지만... 이승훈 질주 계속된다

팀추월 日에 0.03초차 뒤져 아쉬운 銀... 10000m 등 3관왕  
한국, 금 13·은 12·동 13 수확... 역대 AG 사상 최다 메달

### ■ 국가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총합
1	카자흐스탄	32	21	17	70
2	일본	13	24	17	54
3	한국	13	12	13	38
4	중국	11	10	14	35
5	몽골	1	4	5	
6	이란	1	2	3	
7	북한	1	1		
7	키르기스스탄	1	1		

승선을 통과하며 한국에 대해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김선주는 슈퍼대회전에서도 1위로 골인하며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의 기대주 정동현도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복합에서 슈퍼대회전과 회전 합계 1분45초70의 기록으로 1999년 강원 대회 허승욱 이후 12년 만에 남자 알파인 스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여자 크로스컨트리의 간판 이채원은 여자 10km 프리스타일에서 36분34초6의 기록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선물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계아시안게임 8일간의 열전에서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희망을 달았다.

한국은 6일 끝난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13개의 금메달을 사냥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3개를 수확하며 지난 장춘대회(금메달 9개)에 이어 목표했던 종합 3위 수성에 성공했다.

대회 마지막날까지 자리 싸움을 벌였던 일본(금 13, 은 24, 동 17)에 2위를 내주는 했지만 한국은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한 대회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선 기록은 지난 1999년 안방에서 열렸던 강원 대회에서 획득한 11개였다.

알파인스키와 여자 크로스컨트리에서도

금메달이 나오는 등 설상 종목에서의 예상치 못한 선전도 큰 수확이다.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패속 질주' = '깜짝미 파문'으로 흥역을 치렀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우려와 달리 4개의 금메달로 5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대회 첫날 대표팀의 막내 노진규와 조해리의 1500m 남녀 동반 금메달을 앞세운 한국은 중국의 '자폭 작전'에도 여자 1000m와 남자 5000m 계주까지 제패하면서 금 4, 은 4개, 동 1개를 따내며 중국(금4, 은1, 동2)을 제치고 쇼트트랙 종합 1위를 지켰다. 장거리 간판 이승훈이 버틴 스피드스케이팅도 역대 최고인 금메달 5개로 패속 행진을 했다.

한국의 금빛 레이스는 대회 마지막날에도 계속됐다. 이주연·노선영·박도영으로 이뤄

진 여자 대표팀은 6일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3분4초3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노선영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팀에 이어 출발선에 선 이승훈·이규혁·모태범 등 남자 대표팀은 일본에 0.03초로 아쉽게 금메달을 내줬지만, 이승훈은 5000m, 매스타트, 1만m를 제패하며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동계아시안게임 역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부문 첫 3관왕이다.

◇설상종목의 '깜짝 선전' = 한국은 알파인 스키에서 금메달 3개, 여자 크로스컨트리에서도 1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설상 종목의 '깜짝 선전'으로 기세를 올렸다.

한국 알파인 여자 스키의 베테랑 김선주는 알파인 스키 활강에서 1분37초61만에 결

## 곽민정 희망봤다

한국 피겨싱글 사상 첫 AG 메달리스트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곽민정(17·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곽민정은 지난 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립 실내아이스링크경기장에서 펼쳐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95.30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52.65점)를 합쳐 종합 147.95점으로 3위에 올랐다.

곽민정은 기술점수(TES)에서 44.91점, 예술점수(PCS)에서 50.39점을 받았다.

종합 5위 이내를 목표로 출전한 곽민정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부진을 털어버리고 한국 피겨스케이팅 싱글 종목 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은 1999년 강원 대회에서 이천군과 양태화가 아이스댄싱 동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입상 기록이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3위로 선전하며 첫 메달 전망을 밝힌 곽민정은 초반 트리플 플립을 한 바퀴로 처리하면서 다소 흔들렸지만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살코 등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금메달은 일본의 피겨 유망주 무라카미 가나코(177.04점)에게 돌아갔고, 아이마 하루카(일본)가 167.00점으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함께 출전한 김채화(23·간사시대)도 127.48점으로 6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연합뉴스

http://kjmarathon.co.kr



2011년 마라톤의 시작은 3월 1일 광주에서

제46회 광주일보

##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월)

### ■ 참가비

- 풀·하프 : 20,000원
- 5km : 10,000원
- 단체참가 특전 : 지원금 지급
- 하프코스 이상 50인 이상 참가단체 : 20만원
- 하프코스 이상 30인 이상 참가단체 : 10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일보사)
- 광주은행 001-107-437903 • 국민은행 551-01-1468-999 • 농협 617-17-00237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 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나주경찰서

| 참가문의 | 062-220-0541